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령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 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십니다.
 소금이 삶의 결마다 조용히 스며들어 숨은 맛을 깨우듯,
 우리의 믿음도 일상을 새롭게 합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빛으로서 타오를 때
 밤의 길을 가르는 새벽이 됩니다.

믿음을 숨긴 공동체는
 덮인 등불처럼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우리는
 서로를 밝히는 불씨가 됩니다.

작은 충실함 하나가 어둠의 방향을 바꾸는 법입니다.
 그렇게 스며든 빛은 오래 남아 마음 깊은 곳을 비춥니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5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02/04/2026 기준
 본당 목표 금액 - \$ 61,028
 현재 기부 금액 - \$ 47,655
 현재 참가 인원 - 103명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연중 제4주일(2/1)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여자 합계
미사 참여자	49명	80명	227명	172명	51명	579명

성가 안내 입당 성가 : 426 예물 준비 성가 : 221, 216 성체 성가 : 166, 176 파견 성가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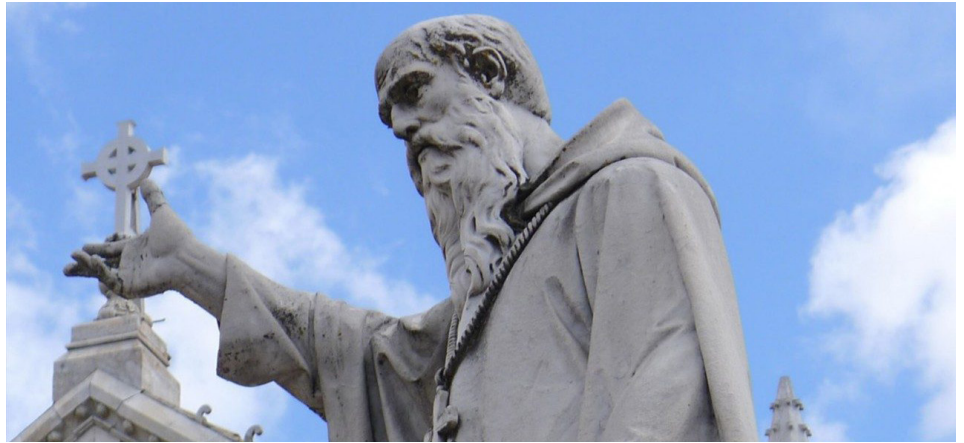
수도 공동체의 규칙을 만든 성 베네딕토

“하느님의 사람 베네딕토는 뛰어난 분별력과 명쾌한 표현으로 규칙서를 저술하였다. 그분의 성품과 생활을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분이 행동으로 가르친 모든 내용을 이 규칙서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이 직접 생활하셨던 것과는 다른 어떤 것도 가르칠 수 없는 분이었기 때문이다.”(그레고리오 대교황 『대화집』 중)

여기서 언급된 규칙서, 즉 『베네딕토 규칙서』는 12세기까지 서방 교회 대부분의 수도원에서 지켜졌던 수도승 생활의 규칙서였으며, 이후에도 서방 수도생활의 기초이자 유럽 수도원 생활의 규범으로 자리 잡으며 베네딕토(480?~547?)를 사부로 여기는 수많은 수도승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사후 1500년이 흐른 지금에도 “서방 수도생활의 아버지”, “유럽 전체의 수호 성인”, “기술자·건축가·개간자들의 수호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베네딕토의 면모는, 바로 이 규칙서를 따르는 제자들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 놓은 업적을 통해 더욱 넓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베네딕토의 생애는 그레고리오 대교황의 『대화집』 제2권에 수록된 전기를 통해 참고할 수 있는데, 교황은 이 책에서 베네딕토의 출생부터 중요한 사건들과 배경, 그리고 죽음까지 전 생애를 묘사했다. 그는 규칙서를 직접 읽고 이를 토대로 베네딕토의 전기를 교훈적 형태로 재구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베네딕토는 480년경 이탈리아 움브리아의 누르시아에서 태어나 547년 몬테카시노에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최근 연구자들은 그의 생애가 490년에 시작해 560년에 마쳤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만닝(E. Manning)과 같은 학자는 몇몇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575년에 사망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의 성장 배경은 비교적 부유한 가정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청년기에 유학차 로마로 갔던 베네딕토는 당시 로마의 도덕적 타락을 보고 회의를 느껴 유모와 함께 엔피데(Enfide)



지방의 사비너 산들로 옮겼다. 이후 유모와의 관계도 끊고 수비아코의 한 동굴로 들어가 3년 동안 은수생활에 몰입했던 베네딕토는, 이 기간 일체 외부와의 관계를 끊은 채 음식마저 바구니에 줄을 달아 빵을 전해 받는 등 철저하게 기도에 몰입하는 생활을 했다. 이때 베네딕토가 머물렀던 동굴은 “사크로 스페코(Sacro Speco, 거룩한 동굴)”라고 불렸는데, 가파른 절벽 중앙에 위치해 외부인의 접근이 지극히 어려웠다고 전해진다. 이집트 수도자들이 사막에서 살아간 삶의 형태를 이어가며 자신의 영혼과 대면하고 악과 어둠의 세력에 맞섰던 것처럼, 베네딕토 역시 그 지역에서 목축 생활을 하며 목동들에게 설교하기도 했다.

부활 축일을 잊을 만큼 기도에 몰입한 수도 생활 속에서 베네딕토는 욕정과 투쟁을 겪었고, 가시밭을 맨몸으로 뒹구는 극기의 행위를 통해 욕정을 제어하고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한 베네딕토의 명성은 널리 퍼져 비코바로(Vicovaro)의 한 수도원 원장으로 추대되는 결과를 낳았으나, 그를 시기하는 이들의 음모로 인해 그는 조용히 그곳을 떠나게 된다. 이에 대해 그레고리오 1세 교황은 이를 “분노에서 초탈하고 높은 인내의 경지에 이른 성덕의 표현”이라고 칭송했다.

이후 베네딕토는 수비아코에 정착해 다시 수도생활에 정진했다.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성덕을 듣고 몰려온 이들을 지도하며, 특별히 12명의 지도자로 구성된 12개의 수도 소공동체를 만들어 수도생활을 이끌었다. 베네딕

토의 명성이 퍼지자 이를 시기한 인근 본당 신부가 독이 든 빵을 보내거나 수도 공동체를 해체하려고 젊은 여인들을 수도원 담 안으로 들이는 등의 일이 발생했다. 그는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고 여기고 몇몇 수도자만 데리고 새로운 곳으로 떠났다.

다시 자리를 잡은 곳은 몬테카시노였다. 카시노(Cassino) 도시에 인접한 해발 519m의 산 정상에서 그는 유명한 수도 규칙서를 저술했고, 여러 기적과 모범으로 동료 수도자들을 지도했으며 인근 주민들을 복음화했다. 몬테카시노는 세상과는 격리된 곳이었지만 다른 수도원의 수도자들과 당대 교회의 주요 인물들이 그의 영적 가르침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중심지가 되었다. 베네딕토는 신분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며, 사회적·정치적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야만인의 침입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기근으로 굶주리는 이들을 도왔다고 전해진다.

그레고리오 교황은 성인이 행한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 기적을 서술하면서 그의 누이동생 스콜라스티카의 기적도 언급한다. 스콜라스티카는 그의 영적 동반자이자 자매로 등장하며, 성인을 인간 존재의 또 다른 측면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베네딕토는 생전에 스콜라스티카와 카푸아의 주교 제르마노의 죽음을 예언하는 환시를 보았는데, 이는 그의 성덕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 주는, 곧 영광스러운 죽음을 예시하는 사건으로 이해된다.

공지 사항

1 미사 안내

① 설(구정) 합동 위령 미사

- 일시 : 2/15(주일) 오전 9시30분/연도
오전 10시/교중 미사
- 미사 후 떡국 잔치가 있을 예정이며, 구역별 대
항 율놀이도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8시, 11시 30분, 오후 5시 30분
미사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설 합동 위령 미사 예물 신청은 2/8(주일)
까지 미리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미사

- 일시 : 2/18(수) 오전 10시, 오후 7시 미사
-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이
날 교회는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축복하여 머
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날 단식과 금
육을 해야 합니다. (노약자, 환자, 군인은 관면됩니다.)

2 시노드 첫 번째 모임

- 일시 : 2/8(주일) 오후 1시
 - 장소 : 성전
- 모든 시노드 참가자께서는 각 소그룹별로 첫
번째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베드로회 모임

- 일시 : 2/15(주일) 8시 30분
 - 장소 : 110호실
- 모든 베드로 회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
랍니다.

4 성지가지 회수

재의 수요일(2/18) '재의 예식'에 사용할 수 있
도록 지난해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축복하여 가
정에 보관하고 있는 성지가지를 2/15(주일)까
지 성당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5 구역 음식 봉사 & 구역의 날

- 일시 : 2/8(주일) 교중 미사 후
 - 음식 봉사 : Mukilteo 구역
 - 메뉴 : 우거지 배추국
- 각 구역원들은 함께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6 구역장 회의

- 일시 : 2/8(주일) 오전 11시30분
 - 장소 : 110호 교리실
- 모든 구역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성당 50주년 기념 기금 안내

50주년 기념행사 및 기념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
를 부탁드립니다

8 글로리 성가대원 모집

- 전례 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신자들이 하나
가 되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시는 분.
- 대 상 : 모든 신자
 - 연락처 : 장 릴리안 206-719-2063
오 마리아 425-876-8593

9 청년회 2026 사순피정

- 일시 : 3/20(금)-3/22(주일)
- 장소 : Lake Retreat, 27850
Retreat-Kanaskat Road,
Ravensdale, WA 98051
- 대상 : 청년
- 참가비 : 학생 \$60, 직장인 \$80
- 신청 마감 : 3/1(주일)까지
- 문의 : 청년회장 김스텔라
425-368-8814



10 봄학기 성경 공부반 모집

① 축복받은 성경 읽기

- 대상 : 참여하고 싶은 모든 분들
 - 모집반 : 마르코 복음반
- 주 1회 부담 없이 모여 성경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

② 가톨릭 성서 모임 그룹 공부

- 대상 : 각 전 단계 공부를 마친 분들.
- 모집반 :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 모임 시작 : 그룹별로 추후 연락.
- 신청 : 본당 사무실
- 신청 기한 : 2/20(금)까지
- 담당 : 교육분과장 최정필 미카엘

입당송

어서 와 하느님께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제1독서..... 이사 58,7-10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리라.〉

화답송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제2독서 1 코린.2,1-5
〈나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선포하였
습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
의 빛을 얻으리라.
- ◎ 알렐루야

복음 마태 5,13-16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영성체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
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우 리 들 의 정 성

【교무금】 박제프 한씨니 안창남 이명희 양요한 이석돈 이진순 이두순 유미자 이춘자 김경자 김대우 김용현 조희성 호명규 신길하 이종성
최민지 오세영 조승희 양성림 장명덕 김병성 박철균 공세진 김요셉 조선경 조항영 김종국 정순도 한경순 박명완 차상철 문범기
천기전 안신자 홍소영 양대석 익명(2) 【교무금 PushPay】 오영주 윤범영 강철권 정재열 이종일 박민수 조성욱 최금희 주성택
유승일 이윤기 이로서 이현주 김명준 송승혜 맹성호 이진열

【감사 헌금】 정순도 이명희 문헬렌 영원한 도움의 성모 자매회 【초 봉헌】 김홍련 김요셉 【꽃 봉헌】 민들레 【성소 후원 회비】 문범기

주일 헌금	교무금	PushPay	2차 헌금(Church in Latin America)	감사 헌금	초 봉헌	꽃 봉헌
\$6,648.00	\$7,170.00	\$3,060.90	\$116.00	\$700.00	\$250.00	\$100.00

교황청 신앙교리부

구원 사업에서 마리아의 협력과 관련된

마리아의 일부 호칭에 관한 교리 공지

충실한 백성의 어머니 (Mater Populi Fidelis)

소개

이 공지는 마리아 신심과 마리아의 특정 호칭들에 관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최근 수십 년 동안 성좌, 특히 교황청 신앙교리부에 제기된 수많은 문의와 제안에 대한 답변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최근 교황님들의 관심사가 되었고, 지난 30년 동안 신앙교리부의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예를 들어 여러 학회와 정례 회의에서 거듭 다루어졌다. 이로써, 본 신앙교리부는 풍성하고 다양한 자료를 모을 수 있었고 이 공지와 더불어 그동안 무르익은 성찰을 제시한다.

이 글은 마리아를 지칭하는 특정 호칭들과 표현들이 어떤 의미에서 허용되거나 허용될 수 없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동시에, 유일한 중개자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신비에 비추어 마리아께서 신앙인들과 이루는 관계에서 차지하시는 위치를 명시함으로써 마리아 신심의 올바른 토대를 더욱 깊이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가톨릭 정체성에 대한 깊은 충실함을 수반하는 동시에 특별한 교회 일치 노력도 요구한다.

이 공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신자들에 대한 마리아의 모성이다. 이 주제는 이 문서에서 매번 새로운 숙고 사항을 통하여 나선형으로 풍요롭게 완성되어 나가는 진술들을 거듭 다룸으로써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이 문서는 마리아의 모성에서 비롯된 마리아 신심을 교회의 보화로 제시한다. 이는 마리아 안에서 피신처, 힘, 자애, 희망을 찾는 충실한 하느님 백성의 신심을 성찰하여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신심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아름다움을 인식하며 증진하려는 것이다. 이 마리아 신심은 성령께서 믿는 이들 안에 기꺼이 복돋워 주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라는 복음적 태도의 신비 교육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난한 이들은 “또한 마리아의 얼굴에서 하느님의 애정과 사랑을 발견한다. 그들은 마리아 안에서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반영되어 있음을 본다.”

그런데 대중 신심으로서의 동일한 특징을 공유하지 않는 일부 마리아 묵상 모임, 출판물, 새로운 신심 형태, 그리고 심지어 마리아 교의 선포를 요청하는 움직임들도 존재한다. 오히려 이러한 활동들은 궁극적으로 특별한 교의적 발전을 제안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자신을 강력히 드러내며 일반 신자들 사이에 자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따금 이러한 시도들은 과거에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던 표현들을 재해석하는 것과 연관되기도 한다. 이 문서는 이러한 제안들을 검토하여, 일부 제안은 복음의 영감을 받은 진정한 마리아 신심에 부합하고, 또 다른 일부 제안은 그리스도교 메시지 전체의 조화를 오히려 묵상하는 데에 무익하기에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이 공지는 진정한 마리아 신심이 교회의 풍요로운 성전(聖傳)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여러 구절에서 폭넓은 성서적 전개를 제공한다. 이 문서에서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성경 언급은 교부들과 교회 학자들, 최근 교황들의 글과 함께 제시된다. 따라서 이 공지는 한계를 두기 보다는 오히려 마리아의 사랑과 그분의 모성적 전구에 대한 신뢰에 함께하고 이를 지지하고자 한다.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

도입

1. 충실한 백성의 어머니(Mater Populi Fidelis), 그리스도인들은 충실한 하느님 백성의

어머니를 사랑과 공경을 담아 바라본다. 은총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닮게 해 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마리아께서는 우리 인간을 변모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행위를 가장 완전하게 표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마리아께서는 그리스도의 은총이 한 사람 안에서 이를 수 있는 모든 것의 여성적 현현이시다. 이러한 아름다움 앞에서 그리고 사랑에 이끌려, 역사 전체에 걸쳐 많은 신자가 그리스도 옆에 계시는 마리아의 특별한 위치를 칭송하며 성모님을 말할 때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하고자 노력해 왔다.

2. 최근에 본 신앙교리부는 「초자연적 현상의 식별 절차에 관한 규범」을 발표하였다. 동정 마리아를 지칭하는 특정 호칭들과 표현들이 그러한 현상들과 연관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런데 -이미 교부들의 저술에도 일부 등장하는- 이러한 호칭들이 언제나 정확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따금 그 의미가 바뀌거나 잘못 해석되기도 한다. 용어상의 문제 외에도, 일부 호칭들은 내용상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한다. 이러한 호칭들이 그리스도론과 교회론과 인간학의 차원에서 심각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마리아의 역할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흔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러한 호칭들을 동정 마리아께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때에 쟁점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대한 마리아의 참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이다. 곧, “구원 계획에서 마리아의 독특한 협력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이 문서는 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나 완전하게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비들 안에서 정립되어야 하는 균형, 곧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개와, 구원 사업에 대한 마리아의 협력 사이에 필요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며, 이러한 협력이 다양한 마리아 호칭들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여 주고자 한다. /

구원 사업에서의 마리아의 협력

4. 구원 사업에서 마리아의 협력에 대한 접근은 전통적으로 이중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상 삶에서 특히 파스카 신비를 통하여 성취하신 객관적 구속에 대한 마리아의 참여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이들에게 현재 마리아께서 미치는 영향력이다. 실제로 이 두 관점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따로 고려될 수 없다.

5.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에 대한 마리아의 참여는 성경에 입증되어 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 사건을 구약에서는 약속으로 그리고 신약에서는 완성으로 제시한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마리아를 미리 볼 수 있는데, 마리아께서는 뱀을 물리치는 그 결정적인 승리에 동참하는 여인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골고타에서 마리아를 “여인”(요한 19,26)이라 부르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카나에서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인”(요한 2,4)이라 부르시며 십자가의 ‘때’에 당신과 함께하시는 마리아와 그분의 역할을 언급하신다.

6. 그 ‘때’에, 마리아의 협력은 마리아께서 주님 탄생 예고에서 하신 “예”라는 말씀을 되풀이하시는 데에서 드러난다. 그 거룩한 순간에,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여인”(요한 19,26)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그분을 “어머니”(요한 19,27)로 소개하시는 장면으로 나아간다. 이에 응답하여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고 설명할 때, 이 복음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의 동사(lamban, 람바노)를 사용한다(요한 1,11-12; 5,43; 13,20 참조). 넷째 복음서는 같은 동사를 사용하여 빛이신 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요한 1,11) 앎았다고 전한다. 다시 말해, 우리를 대표하여 마리아 곁에 서 있던 그 제자는 믿음으로 마리아를 어머니로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 우리를 맡기신 다음에 비로소 “다 이루어졌다.”(요한 19,28) 하고 말씀하셨다. 완성을

암시하는 이 장엄한 말씀은 이 사건에 대한 어떠한 피상적인 해석도 막아 준다. 우리에게 대한 마리아의 모성은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로 성취된 하느님 계획의 일부이다. 마찬가지로 요한 묵시록은 “여인”(묵시 12,1)을 메시아의 어머니(묵시 12,5 참조)이자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묵시 12,17)의 어머니로 제시한다.

7. 나자렛의 마리아께서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년기 사건들의 “탁월하신 증인”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루카 1-2장; 마태 1-2장 참조). 루카 복음사가는 복음서 머리말에서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알린다.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가] ……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루카 1,1-2). 따라서 루카 복음사가 자신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기로”(루카 1,3) 결심하였다고 전한다. 이 목격자들 가운데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의 잉태, 탄생, 유년기의 직접적인 주역으로서 단연 돋보이신다. 수난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요한 19,25) 마리아께서 서 계셨기 때문이다. 오순절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사도들은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 함께 …… 기도”에 전념(사도 1,14)하고 있었다.

8. 루카 복음서는 마리아를 구원의 기쁨을 받아 전하는 새로운 ‘시온의 딸’로 제시한다. 루카는 메시아적 기쁨을 예고한 예언적 약속들을 모아 전한다(스바 3,14-17; 즈카 9,9 참조). 세례자 요한을 기쁨으로 뛰놀게 한(루카 1,41 참조) 그 약속들이 마리아 안에서 성취된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방문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신을 드러내며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루카 1,43) 하고 말한다. 엘리사벳은 “내 주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그분의 어머니를 언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명과 마리아의 사명이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리켜 준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이야기한다(루카 1,41 참조). 마리아를 향한 엘리사벳의 이러

한 자세는 믿음의 본보기로 제시된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벳은 성령께 이끌려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루카 1,42). 놀랍게도, 성령의 활동 아래에서는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복되신 분’이라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엘리사벳은 메시아적 기쁨을 느낀 이때에 두 분께서 내밀히 하나 되어 계심을 인식하며, 예수님의 어머니 또한 ‘복되신 분’이라 부른다. 마리아께서는 여기에서 탁월하게 복되신 분으로 드러나신다. “행복하십니까, …… 믿으신 분!”(루카 1,45) “내 마음이 …… 기뻐 뛰니”(루카 1,47).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루카 1,48). 루카 복음서에서는 이러한 행복을, 마음의 상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큼’(루카 6,23 참조) 작은 이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약속의 완성으로 본다는 점(루카 6,20-22 참조)을 유념할 때, 이러한 설명이 더 큰 중요성을 띠게 된다.

9. 그리스도교 초기에 이러한 주제들의 신학적 발전과 관련하여, 교부들은 주로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어머니(테오토코스, Theotokos)이시고, 평생 동정(에이파르테노스, Aiparthenos)이시며, 온 생애에 걸쳐 죄 없으신 완덕을 지닌 분(파나기아, Panagia)이시라는 측면과 새 하와로서 마리아의 역할에 관심을 두고, 강생의 신비라는 맥락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마리아의 참여를 성찰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태중에서 사람이 되시도록, 가브리엘 대천사의 예고에 대한 마리아의 “예”는(루카 1,26-37 참조), 인간 존재가 신화(divinization)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이러한 까닭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동정 마리아를 그리스도 구원의 ‘협력자’로 부르며, 마리아께서 그리스도 옆에서 하시는 활동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종속되어 계신다는 점을 강조한다. “믿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태어나도록” 마리아께서 그리스도께 협조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충실한 백성의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주에 계속〉